

한국 건축의 이두식 술어에 대한 소고

경 봉 진

한국 건축에서 사용하는 제래의 술어(術語)는 대개 자의식 술어(字意式 術語)로 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의식으로 표현하기 곤란하거나 고유한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이 편리 할 경우에는 이두식 술어(吏讀式術語)도 많이 사용 하였다.

자의식 술어라 함은 글자 그대로 공사의 내용이나 형태 또는 성질 등을 한자(漢字)로 표기 하고 그 글자의 뜻으로써 공사 내용을 알아볼수 있도록 술어를 만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이두식 술어는 공사의 내용, 형태, 성질 등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한자(漢字)로 표기 하고 글자의 뜻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알 수 없으나 한자의 음(音)이나 훈(訓)을 따서 고유한 우리말로 읽으면 알 수 있도록 술어를 만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말을 한글로 쓰지 않고 음(音)과 훈(訓)으로 읽도록 한자(漢字)로써 적은 것이다. 일례를 들면 「柱礎」라는 술어는 주하지석(柱下之石)으로서 글자만 보아도 일론 「주춧돌」이란 개념이 연상 되는 자의식 술어이지만 「道里」라고 하면 글자의 뜻으로는 무슨 말인지 일론 생각이 나지 않을 것이다.

「道里」는 주상 횡목(柱上 橫木)으로서 우리말로 도리(桁)를 이두식으로 적은 것이다.

한국 건축에 제래부터 흔히 쓰이는 이두식 술어를 대충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추녀(春舌)……팔작집(八作家)이나 우진각집(隅進角家)의 지붕귀에서 45° 방향으로 내밀어 거는 부재.

맛배집(박공집)의 경우는 추녀를 걸지 않은 처마(檐牙, 檐下) 지붕이고 우진각집이나 팔작집과 같이 4면이 처마로 된것을 열아(相間牙) 지붕 또는 추너지붕이라 한다.

추녀는 거는 위치와 성질에 따라 선자추녀(扇子春舌), 회침추녀(會檣春舌)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사래(蛇羅)……점 처마집일 경우에 추녀위에 포개 대어 귀로 내밀고 이매기 평고래를 받는 부재.

평고대(平交臺)……연목이나 부연가래 위에 걸고 처마끝을 아무리는 오리목 평고대(平高臺)라고도 쓴다. 겹처마일때 연목 위에 거는것을 초매기(初莫), 부연가

래 위에 거는것을 이매기(二莫)라고 한다.

박공(朴工)……지붕의 맛배쪽의 끝 서까래를 아무리 기 위해서 붙이는 큰 널 또는 맛배쪽의 벽.

박풍판(搏風板) 또는 박풍벽(搏風壁)이라고도 한다.

누르개(累里介)……또는 누리개, 지붕부재의 뒷뿌리가 들리지 않도록 눌러대는 통나무.

누르개는 눌른다(押, 壓)에서 나온말. 연목누르개(椽木累里介), 또는 부연누르개(浮椽里介, 付椽. 飛椽) 등이 있다.

줄대(卒臺)……푹을 좁게 킨 널조각

방풍벽(防風壁)이나 판벽(板壁) 또는 판문(板門)등의 널과 널 사이를 막기 위해 붙인다.

엇평, 줄대(卒帶), 줄목(卒木)이라고도 한다.

살미(山彌)……공포의 초가지나 쇠서 등이 중첩해서 안락으로 내미는 조각물의 총칭.

살(箭)모양 생긴것 들이 겹쳤기 때문에 살미라고 한 것 같다.

소로(小果)……공포의 철차(檐遮)나 장혀(長舌)등을 받치는 네모진 작은 나무토막.

소로는 「로」(櫨)의 작은 것이므로 오히려 「小櫨」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대접소로(大貼小果)……다포(多包)집의 평방(平防)위에 놓고 공포를 받는 네모진 큰 나무토막.

소로 보다 훨씬 큰 것이기 때문에 대접 자를 붙인것이다.

「大樑料」「大樑 小櫨」라고도 한다. 소로의 큰것이므로 오히려 대로(大櫨)라고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쇠서(牛舌)……쇠혀 모양으로 공포의 앞으로 내민 초가지(살미)의 1종. 「혀」를 「서」로 발음 하기도 한다.

수서(垂舌)……양서(仰舌) 위에서 끝이 아래쪽으로 처진 쇠서의 1종

양서(仰舌)……끝이 윗쪽으로 치켜 오른 쇠서의 1종.

귀방(耳防)……다포집의 귀평방 태목 위에 엮어서 귀 공포를 고이는 나무토막. 「耳枋」이라고도 쓴다.

도리(道里)……보거리에 직각방향으로 걸고 연목을 받는 부재의 총칭.

도리는 형목(桁木)으로서 형태에 따라 납도리, 굴도

리, 반도리 등 여러가지가 있고 또 위치에 따라서도 주심도리, 내목도리, 외목도리, 중도리, 중심도리, 처마도리 등 여러가지가 있다.

장혀(長舌)……소로 위에 가로 얹혀서 도리를 받히고 또는 불벽의 안팎 공간을 막아 대는 부재.

장혀는 장여(長樞, 長栊)라고도 한다.

반자(盤子)……천장(天障)의 총칭.

반자는 그 형태, 재료, 위치에 따라 현란반자(懸欄盤子, 攔井盤子), 소란반자(小欄盤子), 평반자(平盤子), 샷갓반자(笠盤子), 빗반자(斜盤子), 궁륭반자(穹窿盤子), 널반자(板盤子)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반자를 반자(班子), 천정(天井) 이라고도 한다.

반자틀(盤子機)……천장을 꾸미기 위한 밀 바탕틀.

귀틀(耳機)……우물마루를 놓기 위해 짜는 틀.

귀틀은 장귀틀(長耳機)과 동귀틀(童耳機)의 두가지로 짜이며 장귀틀은 동귀틀을 받고 동귀틀은 마룻널(短廳板)을 끼운다.

장산(長山)……통마룻널(長廳板)을 깔때 밑에 받치는 부재.

장산은 장선(長線)이라고도 한다.

머름(遠音)……벽 또는 창문의 아래쪽이나 층계의 난간 중간 등에 두개의 중방을 사이를 띄어 걸고 그 사이에 동자와 간판(間板)을 끼운 조각물의 총칭.

머름중방(遠音中防)……머름을 꾸미기 위해 건너 질르는 중방.

머름동자(遠音童子)……위 아래의 머름중방 사이에 끼우는 조그만 기둥. 대개 윗쪽은 세모꼴로 뾰족하게 깎고 머름중방에 홈을 파서 넣는다.

머름간판(遠音間板)……머름동자 사이에 끼우는 널 조각.

머름간판은 머름착고(遠音着固)라고도 한다.

중깃(中衿)……홈벽의 외가지를 엮기 위해 두 중방 사이에 질러 세운 가느다란 셋기둥.

중깃은 「벽중깃」이라고도 하고 중금(中襟) 이라고도 쓴다.

용지판(龍枝板)……기둥면 보다 벽을 내밀어 쌓을때 벽의 끝과 기둥과의 아물이를 하기 위해 붙이는 널. 용지판은 용판기이라고도 하고 용지판(龍支板)이라고도 쓴다.

신방(信防)……일각 대문의 기둥 밑에 놓는 안팎으로 긴 토대.

신방은 신(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판 따서 신방(信防) 이라고 한것 같으나 오히려 이방(履枋)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층교틀(層橋機)……층계의 측판. 층계는 계단(階段),

층층대(層層臺), 층대(層臺), 층다리(層橋), 층층다리(層層橋), 층계(層梯) 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리우며 형태에 따라 평란층계(平欄層梯), 고란층계(高欄層梯) 교란층계(交欄層梯), 양장층계(羊腸層梯), 곡란층계(曲欄層梯)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머름대(遠音竹)……머름층계의 중방.

법수(法首)……층계의 업지기둥 머리를 보주(寶珠) 모양으로 조각 한것.

보주는 보리수(菩提樹)의 열매인바 끼워서 염주(念珠)를 만들기 때문에 보주라 하고 그형태를 법당의 난간 기둥머리나 상륜 등에 장식적으로 사용한다.

원죽(圓竹)……둥글게 깎은 층계난간의 손 스킴대. 둥글대 또는 난간대 라고도 한다. 여기서 죽(竹)은 죽재(竹材)의 뜻이 아님은 물론이다.

장군목(將軍木)……대문 빗장의 1층, 잠근나무이기 때문에 잠근목(빗장)을 장군목(將軍木)이라 한것이다. 성문이나 궁궐문 같이 큰 대문의 안쪽에서 문짝에는 갈구리쇠에 걸치고 양쪽은 장군석(將軍石) 홈에 질른다.

장부(丈夫)……목재의 끝을 가늘게 해서 다른부재에 관 홈에 끼우도록 만든 축의 총칭.

장부는 예(柅)로서 그 형태와 장소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둔태(屯太)……대문짝을 달기 위해 문지방과 인방 또는 기둥에 붙이는 나무토막.

장소와 형태에 따라 여러가지 있다.

닷집(檀家)……불단, 보좌, 영실등 윗쪽에 장식적으로 만든 조그마한 천장에 매달린 집.

닷집은 당가(唐家)라고도 한다.

월대(越臺)……궁궐 전면의 높고 넓은 기단.

월대는 달구경을 하는곳. 즉 월대(月臺)에서 나온 것이다.

토수(吐首)……지붕의 귀로 내민 사래 끝에 끼우는 장식 기와.

토수(套手, 吐手)는 겨울에 팔목에 끼우는 것 인바 사래끝에 역시 끼우기 때문에 토수(吐首)라고 한것 같다. 막새와(莫斯瓦)……처마 끝에 잇(葺)는 내림새 기와. 막새는 사이를 막는다는 뜻이므로 막새와 라 한것이다. 막새와는 여막새(女莫斯), 부막새(夫莫斯)의 두가지가 있다.

장군석(將軍石)……성문이나 궁궐문 등의 대문 빗장(將軍木)을 질르기 위해서 빗장 홈을 판 돌.

장군목(將軍木)참조

귀틀돌(耳機石)……기단을 축조 할때 다듬은 돌로서 귀틀을 짜는 돌.

귀틀은 다듬은 돌로 짜고 중간은 잡석이나 자연석 등으로 쌓는다.

머름돌(遠音石)……머름 밑을 막는 돌.
머름(遠音) 참조.

고막이돌(庫莫石)……하방 밑의 빈 공간을 막는 돌.
고매기 돌 이라고도 한다.

신방석(信防石)……일가래문의 신방 밑에 놓는 돌.
신방(信防) 참조.

깃대돌(旗竹石)……깃대를 세우는 돌.
성곽 위에 기치(旗幟)를 꽂기 위해 흙을 파서 놓는 돌.

장부쇠(丈夫金)……대문 장부축에 끼우는 쇠.
장부(丈夫) 참조.

감자비쇠(甘佐非金)……대문 둔태나 대문작 등의 나무 사이가 벌어 지지 않도록 감싸 잡아 주는 역할을 하는 장식 철물.

대접쇠(大貼金)……대문 둔태의 장부홈 돌레에 박는 쇠
배목(排目)……대문 고리를 거는 쇠.

거덜못(巨勿釘)……꺼쇠의 1종
사슬고리(沙瑟環)……대문에 박는 사슬이 붙은 고리.
사슬은 쇠고리를 두개 이상 연결한 것이다.

갈구리쇠(袈拘里金)……들창문을 안으로 울려 걸때 또는 물건을 걸때 쓰는 갈구리 모양으로 생긴 철물의 1종
돌저귀(勿進耳)……문짝을 달때 쓰는 철물의 1종.

돌저귀는 앞과 뒷이 있으며 문짝에는 앞 돌저귀를 박고 문설주에는 암 돌저귀를 박는다.

이상 한국 건축에 주로 쓰이는 이두식 술어에 속한 것을 대충 들어 보았으나 지면 관계로 이 정도로 그치고 다음에 일반 농가에서 상용하는 물건들에 대한 것을 참고로 적어 보겠다.

가래(乃加)……흙을 퍼 올리는 연장의 1종. 흙을 퍼 올릴때 한사람은 가래 자루를 잡고 두사람이 가래줄을 잡아 다닌다.

지래(支乃)……무거운 물체를 다룰때 쓰는 연장의 1종.
보통 「지렛대」라고 하며 천금철(千金鐵)이라고도 한다.

곶괘이(串光屎)……흙을 파는 연장의 1종.
한자로는 곶괘(串鏟)라고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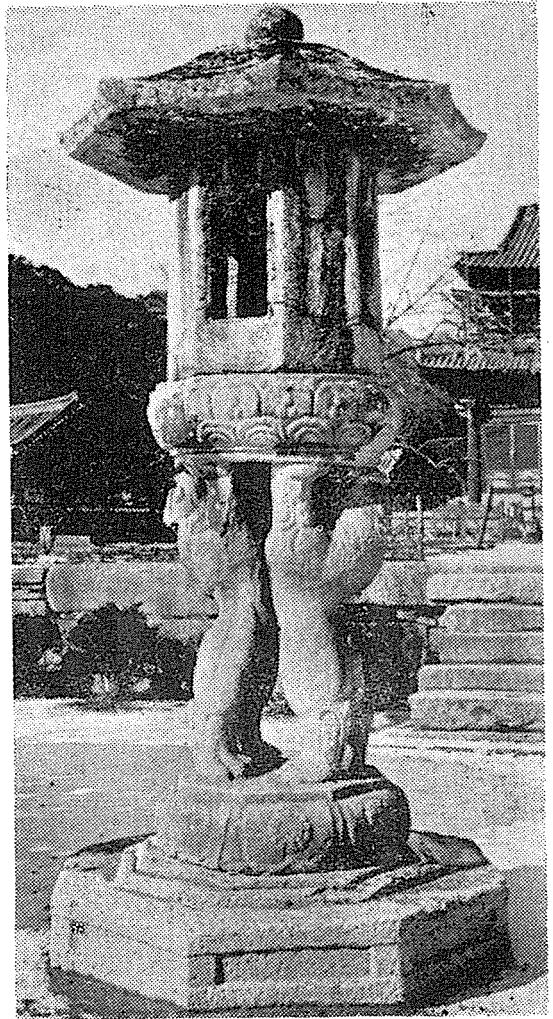
몽둥이(夢同)……사람이나 물건을 두드릴때 쓰는 나무 토막.

방망이(方文理)……빨래 할때 또는 다드미질 할때 쓰는 나무 토막

삼태(三太)……물건을 담어 나르는 용기.
보통 「삼태미」라고 부르며 한자로는 분(畚)이라 쓴다.

동이(東海)……물을 담는 용기의 1종.
한자로는 분(盆)이라 쓴다.

시루(所羅)……동이 밑에 구멍을 뚫은것.
시루는 떡을질때 또는 콩나물을 기를때 등에 쓴다.
자백이(著朴只)……동이 보다 얇고 넓직한 용기의 1종.



범주사 쌍사석등, 충북 보은

물건을 담어 들때 또는 물건을 씻을 때 등에 사용하는 용기.

사대접(沙大楪)……사기 대접. 식기의 1종.
대접은 식기중 가장 큰 그릇이다.

사접시(沙楪匙)……사기접시. 식기의 1종.
접시는 키가 아주 얇고 넓직한 그릇.
주로 반찬을 담는 그릇이다.

보시기(浦兒)……중발 보다 작고 종지 보다는 큰 식기의 1종으로 보세기라고도 한다.

주걱(周楮)……술에서 밥을 푸는 기구의 1종.

며서리(篋西里)……집세끼로 엮어서 만든 둥글한 용기의 1종.

농가에서 많이 사용 한다.

(필자 본협회 이사, 국보건설단)